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 광야의 소리

## Voice in the Wilderness

11/12월호  
2014년

Email: VoiceOfNM@gmail.com

관련기사:알래스카항공이 소개하는 알버커키

International Balloon Fiesta 2014



Photo by K H L

##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를 통해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고 한인회의 소식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도움을  
주시는 앨버커키 감리교회와 광야  
편집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와  
서울에서 열린 세계회장대회에  
참석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인이 한글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과 '자랑스러운 세계한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보며 여러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월에 있었던 야의 추석 잔치에 아낌없이 맛있는 음식과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 김영신, 김길자, 최신옥, 정한옥, 김진화,  
이덕녀, 조민성, 에스터 박, 유금인, 류종재 목사님, 임낸시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라스크루세즈 VFW 12117 에서 있었던 International

## 2014년 11/12월호 내용

- 표지 | 표지사진/한인회장인사 : 1
- 한인회소식 | 김치축제 : 2
- 한인회소식 | 평화훈장증정식 : 3
- 한국학교소식 | 방문교사연수 : 4
- 한국학교소식 | 금요반 요리수업/  
'신나는 한국학교의 날': 5
- 정원관리 | Fall is for planting! | 서혁상 : 6
- 수필 | 용 - 상상의 동물 | 이정길 : 7
- 수필 |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 윤성열 : 8
- 지역소개 | 알래스카항공이 소개하는 알버커키 : 10
- 지역사회소식 | 알래스카항공 신규노선 : 11
- 수필/편지 |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나서 | 김준호 : 12
- 칼럼 | 진리를 찾으려는 의지 | 김기천 : 14
- 역사상식 | 알래스카 매입과 하와이 합병 | 전용배 : 15
- 생활상식 |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 16
- 미국의 소리 영어교실 | Feeling Off : 20
- 광고 | 뉴멕시코 교회안내 : 21
- 광고 | 뉴멕시코 한인업소 안내 : 22



## 한인회 소식

Festival에서 군무, 이희정 님의 장구춤과 부채춤은 우리 한류의 자랑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회장이 되어 일하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큰 행사를 남겨 놓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가장 큰 행사인 한국정부에서 지원하는 6·25 참전 용사 평화훈장 수여식이 11월 7일에 있고 김치 축제가 11월 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교민 여러분과 지역 교회의 도움이 없이는 치를 수 없는 행사이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1월 7일 평화 훈장 증정식에는 앨버커키 시장, 주지사 및 다수의 내빈들이 참석하며 채널 7과 앨버커키 저널에서 취재를 나올 예정입니다. 기타 여러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자리를 함께 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한인회 홈페이지와 광야의 소리 안내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 알려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인회장 일을 하면서 뉴멕시코 교민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한인회는 '같이 합시다. 함께 갑시다!'를 저의 남은 임기 동안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늘 풍성한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조규자 올림

**7th Annual  
뉴멕시코주 한인회 김치축제  
Korean Kimchi Festival**

**Saturday,  
Nov 8th 2014**

**10:30am - 3:00pm**

**FREE ADMISSION**

**Includes:**  
-Various Kimchi  
-Rice Cakes  
-Mandu  
-Folk Dances  
-And More!!

**Sponsored by:**  
Korean Consulate General L.A., Korean Student Assoc. At UNM,  
Korean Pastors Assoc., Korean Catholic Community,  
A-Ri-Rang Oriental Market, Kim's Oriental Market,  
A-I Oriental Market, Asian Market, Korean Language School,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Yong Shin Kim)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NW corner of Menaul & Eubank)  
Tel 505-271-1777 <http://www.kaanm.com>

## 한인회 행사

## 추수 감사절 오찬

11월 19(수) 12시 한인회관에서 어버이회(회장:최선남)에서 뉴멕시코 재향 군인회 회원님들을 모시고 추수감사절 오찬을 가집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 한인회 행사

## 김치축제

제7회 한인회 김치축제가 열립니다.  
11월 8일 토요일 10:30am-3:00pm  
장소: 한인회관 왼쪽 포스터를 참조해 주십시오.

## 한인회 위치 약도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NOV 7TH 2014**  
**평화 훈장 증정식**  
**THE APPRECIATION DAY**  
**FOR KOREAN AMBASSADOR PEACE MEDAL**  
**PRESENTATION TO KOREAN WAR VETERANS**

**AT NM VETERAN MEMORIAL PARK**  
**(1100 LOUISIANA BLVD SE)**  
**10 AM - 2 PM, SERVING LUNCH**

한국참전용사들을 위한 감사의 날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엘에이 총영사님이 평화 훈장 증정식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교민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271-1777 WWW.KAANM.COM

## 한인회 행사

## 송년 파티

12월 3일(수) 12시 어버이회 모임  
 에서 송년파티가 있습니다. 한 해  
 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교민 여러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  
 랍니다.

## 한인회 행사

## 평화훈장 증정식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뉴멕시코  
 시코 베트남스 메모리얼 공원에  
 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메달 증정식을 갖습니다. LA 총  
 영사님께서 오셔서 진행하십니  
 다. 교민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왼쪽 포스터를 참조해 주십시오.  
 점심 식사가 준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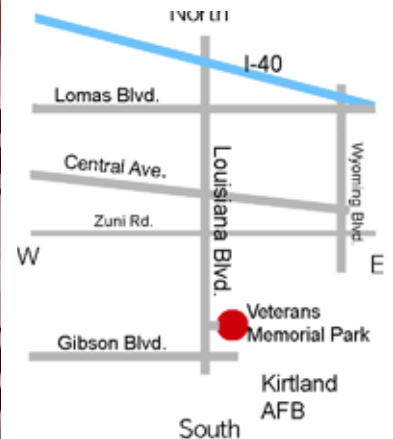
New Mexico


Veterans Memorial Park

1100 Louisiana Blvd. SE

베테란스 메모리얼 공원

## 찾아오시는 길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Indian School Rd.  
 Americas Pkwy.  
 Marriott Dr.  
 I-40  
 Americas Pkwy.

## Japanese Kitchen

##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 (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 1. 방문 교사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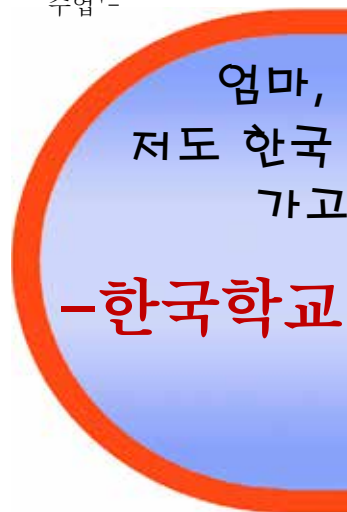
LA 한국교육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시행한 방문 교사 연수가 10월 18일 (토) 총 25분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알차고 보람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교육원 소속의 전문 한국어 교육 강사 이유경, 이해진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정을 다해 임해 주신 교사 및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수를 위해 특별히 전체 식사와 간식에 도움을 주신 조규자 회장님과 정종연 이사장님, 강사님 식사를 대접해 주신 김영신 이사님과 손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 에스더, 손주영, 김태원, 양정숙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육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연수 중 총 8시간 강의를 다 이수한 13분께는 LA한국교육원에서 수여하는 수료증이 전달되었습니다.



-좋은 씨앗 한국학교 교장 이해진 강사님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의 실제> 강의-



-어바인 한국학교 이유경 강사님의 영어권 유아교육 (4-5세)의 '흥미유발 및 지도방법'과 '학습자 맞춤형의 시청각 교재, 교구 및 놀이활동' 한국어 수업-



-보람된 시간 연수를 잘 마친후-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에 열중하는 참가자들-



-강사님 저녁 식사를 대접하신 김영신 이사님과 함께-



-이날의 메뉴인 비빔밥과 육개장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봉사자들의 손길들-

## 2. 금요일반의 요리 수업

새롭게 개강한 초급 성인반, 중급 주니어반, 고급반 총 24명의 금요일반 학생들이 김밥과 떡볶이를 직접 요리해 본 수업. 이번 요리 수업을 계기로 개강 초반 학생들간의 서먹함은 사라지고 반 친구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싫어요!!  
소식-



## 3. '신나는 한국학교의 날!'

-올가을 학기의 마지막 행사를 소개합니다- 2014 가을학기는 13주차로 12월 13일 학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간 매 학기의 종강 날에는 학부모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발표회를 가져왔지만, 이번 학기는 11월 8일 김치 축제에 학생들의 발표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학교가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자리가 잡혀가는 시점이기때 이번 종강 행사로는 '기다려지는 학교, 가고 싶어지는 학교, 재미있고 신나는 한국학교 만들기!' 라는 기치 아래, 보다 더 학생이 중심이 되는 내용을 기획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기 중에 출석, 지각하지 않기, 숙제, 수업 중 한국말 사용, 수업 참여도, 복습, 친구 간 서로 존중하기 등의 기준에 따라 각자 스티커를 배부받고, 12월 13일 종강날에 자신이 모은 스티커를 사용해 교실 별로 꾸며지는 다채로운 활동 - 크리스마스 방(산타와 사진찍기, 카드 쓰기), 1일 분식 방( 한국말로 음식 주문하기, 한국 음식 맛보기), 팝콘과 함께하는 영화 감상 반(한국 만화 영화 감상), 풍선 아트 방(동물,꽃 이름 알아보기, 손으로 직접 풍선 만들어 보기), 페이스 페인팅 방(한국의 유명한 캐릭터 소개, 친구와 사진찍기), 전통놀이 방(한국의 다양한 놀이 체험), 아나바다- 아껴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와 쇼핑 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위한 송편 만들기 경연대회와 자녀와 함께하는 윷놀이 시간도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교민들의 학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길을 기다립니다. 아나바다 물물 교환을 위해서 새 물품 및 자녀들이 사용하던 문구류, 도서, 의류, 장난감, 문화용품이나 기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깨끗이 손질하여 학교로 보내 주시고, 그 외 음식 재료 후원(떡볶이, 김밥 재료)도 받고 있습니다. 안,팍으로 모아지는 이러한 물품들로 학생들은 쇼핑 방에서 친구와 손을 잡고 스티커를 사용해 한국말로 물건 사기를 경험함으로써 한국학교 종강 날이 아주 즐겁고 기억에 남는 시간으로 장식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학교는 새로 생긴 금요일반을 포함해 50명이 매주 수업에 임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공되는 교사 교육을 통해 수업과 학교 운영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한류를 통해 세계 방방곡곡에서 '가보고 싶은 한국, 배우고 싶은 한국어'라는 기치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이 때에, 우리 뉴멕시코통합 한국학교가 미국 속 한국어 교육에 날개를 달 수 있는 학교, 한국말 배우기 열풍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학교, 더욱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불어 교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FALL IS FOR PLANTING!

가든 센터를 찾는 많은 분들이 일년중 언제가 나무 심기에 가장 좋냐고 자주 묻습니다.

알버커키는 일반적으로 사계절 나무를 심을수 있습니다. 그중 봄과 가을은 나무를 심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가을은 나무를 심기에 아주 적합한 계절입니다. 무더운 여름보다 찬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 가면서 나무를 심을때 발생하는 쇼크(Shock) 나 스트레스(Stress)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나무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하게 새로운 환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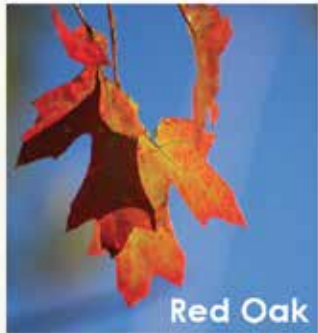
서혁상 집사

Osuna Nursery  
General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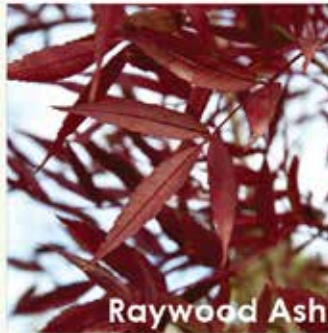


(Slower Growth)과 쇼크(Shock)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가을에도 꽃이 피는 식물을 심을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화초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추위에 강한 식물(Cold hardy plants)들이어야 합니다. 추위에 강한 대표적인 꽃은 팬지(Pansy)입니다. 이 꽃은 10월경 부터 1월까지 꽃이 핍니다. 그외에 Heuchera coral bells, Plumbago, Phlox, Dianthus, Snapdragon 등등이 있습니다. 건강한 꽃을 겨울에 보기 위해선 적당한 태양광, 물, 비료 그리고 죽은 꽃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물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주어야 하고 비료는 한달에 한번 일반적인 비료(All Purpose, 20-20-20)를 주면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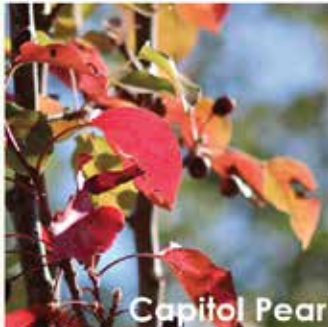
Red Oak



Raywood Ash



Autumn Blaze Maple



Capitol Pear

빨리 적응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나무를 심은 후 얼마되지 않아 겨울이 되면 거의 모든 낙엽수(Deciduous Trees) 들은 동면(Dormant)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나무들은 성장을 멈추고 모든 힘(Energy)을 뿌리 성장(Root Development)에 집중하게 됩니다. 겨울동안 잘 성장된 뿌리는 봄에 나무가 큰 무리없이 자랄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봄도 좋은 계절이긴 하나 이 두 과정을 나무가 동시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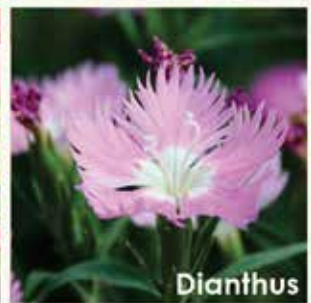
Plumbago



Pansy



Snap Dragon



Dianthus

Photo Credit: Vanessa Sanchez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Sat 11:00am-9:3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292-8222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수필

# 용 - 상상의 동물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거대한 뱀의 모양을 한 용은 온몸이 비늘로 덮여있으며, 얼굴은 길고 입가에 수염이 나 있다. 머리는 낙타와 비슷하고 뿔은 사슴, 귀는 소, 눈은 토끼, 목은 뱀,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발바닥은 범과 같다. 상상의 동물인 용은 이처럼 들짐승, 물짐승, 날짐승의 여러 가지 형태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못 동물의 우두머리로 꼽힌다.

중국사람들이 끔찍하게 섬기는 동물로, 바다나 호수 등의 물 속에 살며, 때로는 자유로이 공중을 날아서 구름과 비를 몰아 풍운의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전설에 나타나는 기린, 봉황, 거북과 함께 사령 (네 가지 상서로운 영물) 이라고 불린다. 조화에 초능력을 가진 존재여서 천자에 비견되었다. 한편, 인도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동물로 간주되기도 했다.

사는 곳이 물 속이라 민간신앙에서는 물을 지배하는 수신이자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으로 용궁에서 산다. 1997년 11월에는 경북공에 있는 경회루 연못을 준설하다가 구리와 납으로 만들어진 용 조각물을 발견했다. 용은

예로부터 왕의 상징물로 이용되기도 했고, 화재의 예방을 빌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 조각물은 길이 150센티미터에 무게는 67 킬로그램으로, 그 복제품이 다음 해 2월에 같은 연못에 다시 방생되었다.

이렇게 불가사의한 동물이다 보니 용이 상징하는 것도 매우 다양하다. 용이 가진 초능력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데에 쓰였다. 임금의 얼굴은 용안이고, 임금의 수염은 용수였으며, 임금의 눈물은 용루, 임금이 입는 옷은 용포 또는 곤룡포, 임금이 타는 수레는 용가 또는 용거, 임금이 정무를 볼 때 앉는 곳은 용상이었던 것이다. 과거에서 문과에 장원한 사람을 용두라 불렀으며, 등용문은 입신출세에 연결되는 어려운 관문이나 시험을 나타내는 말이다.

가공의 동물인 용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부터 인간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성스럽고 신비한 존재였다. 오복을 불러들인다고 믿었기에, 사람들은 용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다섯 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고려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는 용왕의 딸과 결혼했고, 조선 건국의 위업도 용비어천가로 찬송되었던 것이다.

용띠의 사람은 건강하고 정력적이며 정직하고 용감하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뢰감도 두터운 성격이다. 물욕이 없는 편이며, 아첨하는 것을 싫어한다. 도량이 넓고 생명력이 넘치며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한다. 반면 화를 잘 내고 곧잘 흥분하며, 고집이 세고,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다소 괴팍한 성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남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은 무모한 성격도 지니고 있다. 자존심이 강하고 매우 직선적이다. 앞으로 전진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옆이나 뒤를 돌아볼 줄 모른다. 외향적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활동가, 여행가, 그리고 뛰어난 언변가의 기질이 있다.

용을 보는 시각은 동서양이 극명하게 갈린다. 서양에서 용은 온갖 모습으로 표현되는 전설상의 괴수다. 뿔 장식이 있는 목에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을 가졌으며, 종종 입으로 불을 뿜는다. 날개를 달고 땅위를 기어다니는 거대한 동물이다. 아주 큰 뱀에, 악마의 우두머리에, 때로는 매우 엄격한 사람에 비유되기도 하며,

악의 상징이어서 퇴치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한 서양 용의 후손들이 인도네시아의 섬 코모도 국립공원에서 허술한 방호벽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현존하는 최대의 도마뱀이다. 회색에 길이는 3미터, 무게는 150킬로그램에 달한다. 엄청나게 큰 이 도마뱀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아주 오랜 옛날의 지도에 화려한 빛깔로 적힌 ‘용이 있는 곳’ 이라는 세 글자이다. 그 동물을 접해 본 사람이 지도를 만들었다면 틀림없이 ‘요주의!’ 라는 말을 덧붙였을 것이다.



대나무로 만든 서울 용산의 용

탐욕스러운 사냥꾼인 녀석들은 한 시간에 20킬로미터를 달린다. 몰래 숨어있다가 멧돼지, 사슴, 염소 등의 배를 물어뜯거나 다리에 상처를 입힌다.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입으로 불을 뿜는다. 질질 흐르는 침에 지혈을 막는 독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습격 당한 사냥감은 출혈을 계속하게 되고, 상처부위가 감염되어 거의 틀림없이 죽게 된다.

오십 년을 거뜰히 사는 코모도드래곤의 조상은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살던 공룡들이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남아 지금은 햇볕을 쬘고, 사냥하고, 썩은 고기를 먹고, 알을 낳는다. 도마뱀의 생태와 아주 비슷해진 것이다. 용은 초능력을 발휘하는 무시무시한 전설상의 동물이다. 어떤 집단 또는 한 부족의 내력이나 자연물의 유래, 이상한 체험 등이 예로부터 민간에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전설’ 이라 이른다면, 아득히 먼 옛날 사람들의 공룡 체험이 용의 전설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공룡의 위력이, 용이 지니는 무소불능의 신화를 만들어냈음에 틀림없다.

지난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해이면서 60년 만에 오는 황금용의 해이기도 했다. 전세계에 퍼져 사는 중국사람들이 행운과 부의 상징인 용의 해를 맞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그 해 초 축하연을 벌였다. 홍콩에서는 300미터짜리 용이 축구장에서 새천년을 향해 용틀임을 했으며, 세계 곳곳에서 사는 중국인의 출산율이 증가하기도 했다. 행복이나 부와 연관된 전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까.

처음은 좋으나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용두사미라 한다. 기공식보다 준공식을 훨씬 성대하게 여는 중국인들의 관습은 우리도 따라야 할 행동 양식이다. 두 강자가 싸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 것을 용호상박이라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전법이다. ■



##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인생을 90세로 잡고, 그 기간을 하루 24시간 중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활동한다고 할 때 30세는 오후 12시 51분, 40세는 오후 3시 8분, 45세는 오후 4시 16분, 50세는 오후 5시 25분, 55세는 오후 6시 34분, 60세는 오후 7시 42분, 65세는 밤 8시 51분, 70세는 밤 10시가 된다고 합니다. 저의 인생시계에도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오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지 벌써 11년 2개월 7일이 되어가면서 이 가을 중년의 날, 마음을 정돈해 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사모와 함께 L.A. 소재 코너스톤교회(이종용 목사) 초청으로 무려 6박 7일 동안 매 시간 감동과 도전이 넘치는 큰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코너스톤 교회가 매년 시행하는 “Connection” 사역은 미국과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부부,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하여 쉼과 위로를 제공하며 그저 그들의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므로 모두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Refresh), 새 힘을 얻고(Recharge), 새롭게 소생하는(Remove) 섬김의 사역인데 올해 벌써 11년째로서 미국 및 한국, 멕시코, 니카라과, 아랍 에미리트, 인디아 등지에서 32분이 부부로 참여하여 참으로 좋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600여 성도의 코너스톤 교회, 어찌 보면 오늘날 기준으로 그리 큰 교회가 아닌데도 참가자 전원의 왕복 비행기표 및 숙식을 최고로 제공하였고 성도들의 헌신이 넘치는 4박의 홈 스테이, 그리고 마지막 2박 3일은 요세미티 공원의 대자연가운데서 2박 3일간의 신혼 여행(?)을 누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종용 목사님, “너”,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겨울아이” 등(저도 대학시절 통기타를 치면서 목이 터져라 불렀던)으로 70년대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인기와 돈과 명성가운데 폭 빠져있다가 어느 날 대마초 사건으로 투옥되어 구치소에서 4개월 간의 험한 옥살이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며 어느 젊은 사형수로부터 “내 뒤통까지 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등에 업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다가 절망과 좌절의 그 차가운 감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출감 이후 부른 곡이 바로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입니다.)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다 버리고 1982년 33세의 나이로 미국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에 있는 남부침례대학교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입학하여 공부를 마치고 8년 반 동안 국제결혼가정교회를 그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성실과 열정으로 사역하여 1800여 한인 중 600여명의 등록교인을 갖는 ‘건강한 교회’를 사역하다(미국남침례회에서 1년에 3개의 건강한 교회 중 하나로 뽑히기도 하였음) 1993년 L.A.에 현재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도착부터 떠나올 때까지 감동과 감사로 마음은 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마디로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인생에 고수를 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의 고수이시지만 실은 사랑이 넘치는 인품의 고수였습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을

윤성열 목사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향한 열정과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은 한치의 과장이나 거짓도 허용되지 않는 성령님의 강하고 분명한 임재 가운데 연이은 성도님들,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 20여년간 같이 해온 그분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의 진정한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를 내내 감동과 눈물로 사로잡았습니다. 목회적 기술이나 지식, 방법론이 아닌 꾸준한 QT를 통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는 압권이었고 찬양팀과 성가대는 최고였습니다(Not one of the best, but the BEST!) 특히 지극하신 연세, 당당한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하신 모습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4분의 안수집사님들(타교단의 장로와 같은 위치) 및 생업을 뒤로하고 자원하여 섬겨주신 30여 분의 성도님들의 봉사와 희생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한 안수집사님은 매 주일 새벽 5시경에 교회에 오셔서 커피를 손수 끓이고 온 교회를 돌아보며 예배를 준비하는 섬김의 일을 10년째 하셔서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 귀감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내내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마음에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종용 목사님, 저야말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좋은 것과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젊은 날 낭비하고 죄에 버리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도 정신 차려 목사님처럼 조용하신듯하나 불 같은 사람, 한 영혼을 위해 정말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찾아내는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 설교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을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을 통해 목회는 기술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시 정돈해야겠습니다. 바르게 가야겠습니다. 기본을 다시 닦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인간은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잘 준비된 자에게 더 풍성한 기회를 주십니다. 실력이 없으면 무력해지는 것이 인생의 현장입니다. 목사로서 실력을 쌓아야겠습니다. 목사의 실력은 영적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력을 쌓는 것입니다. 목사의 실력은 인격입니다. 사람을 품는 고상한 성품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실해야겠습니다. 진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겠습니다. 마음을 잘 쓰고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목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조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겠습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쓰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의 지름길을 찾고 정도를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중국어, 스페인어도 계속 공부하여야겠습니다. 강하게 걱정했지만 지체되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이어 성경 완독도 2년 안에 이루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음미 해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아름답게 가꾸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나가야겠습니다-‘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미상-  
 매년 이때쯤이면 자신의 반성에 들어가면서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입니다. 어쩔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인생의 가을을 기다리듯...

얼마 전 한 동포가 이곳에 한동안 머무르다가 떠나면서 남긴 말이 마음에 아팠습니다. “왠지 앨버커키 사람들이 남루해 보이네요” 작은 도시인데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불화로 이지러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수년간 많이 어지러워졌다고들 말합니다. 전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저 자신 가장 부족한 목사로서 먼저 회개합니다. 또 목사님들부터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에게 비굴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교인 한 사람 얻으려고 이웃 교회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았는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장 14절)

앨버커키 동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샌디아 마운틴 위에 떠오르는 태양이 처음에는 작은 점이지만 중천을 운행하면서 밝고 빛나는 태양이 되고 저녁 서쪽 하늘에 아름다운 노을을 남기는 것처럼 동포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Let’s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Let’s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침례교 선교사 William Carey- ■

## 모시는 말씀

사랑하는 동포여러분!  
 오늘도 만만치 않은 이민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치하 드립니다.  
 저희 침례교회가 설립된지 어언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고 힘찬 새날을 열어가십시오. 난치병,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꼭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를 받으시고 건강한 미래를 펼쳐가십시오.

저희는 비록 지금 수가 적고 여건이 부족하지만 동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준비합니다. 부디 오셔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꼭 오셔서 저희들에게 기쁨과 격려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담임목사 윤성열 외 교우 일동

-아래-

## 설립 35주년 감사예배

일 시: 11월 15일(토)- 오후 5:00

예배후에 만찬이 있습니다.  
 기념품을 드립니다.

## 설립 35주년 신유 성회

강사: 조영배 목사, 조현숙 사모(순복음 댈러스 교회 담임)

일 시: 11월 14일(금)- 오후 7:00  
 11월 15일(토)- 오후 7:00  
 11월 16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장 소: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87121



문 의: 윤성열 목사(505-331-9584, 242-8371)  
 정종문 집사(505-231-7500)

기 타: 동시통역됩니다

## 지역사회 소개

## 알래스카 항공 기내 잡지가 소개하는 알버커키

# 알버커키: 남서부 스타일이 뉴멕시코에서 하이텍 문화와 잘 어울리는 곳

알래스카항공 기내잡지 (Alaska Airlines Magazine) 9월호에 신설 노선의 기착지 도시 소개에 알버커키를 소개하는 기사가 나왔다. 아래의 글은 그 기사를 요약해서 소개하는 글이다. 알버커키가 어떻게 외부 세계에 소개 되고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기사가 될 것이다. 원문의 제목은 <Destination Albuquerque: Southwestern style mingles easily with high-tech culture in New Mexico>이며 글 쓰이는 Eric Lucas 이다.

알버커키는 긴 문화적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곳의 올드타운(Old Town)에는 18세기 개척시대의 고풍이 그대로 살아 있는가 하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막에서 떠오르는 다채로운 색채의 열기구같은 현대적인 풍경도 공존하는 곳이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국제 열기구 축제 (International Balloon Fiesta)에는 마치 롤리팝(Lollipop)같은 열기구 풍선이 남서부 특유의 맑고 푸른 하늘로 셀 수도 없이 많이 떠오르는 장관의 경치를 볼 수 있다. 일년 중 310일이 구름 없는 개인 날로 알려진 이 곳은 보통 날에도 리오그란데 벨리 (Rio Grande Valley)에서 떠 다니는 발룬을 자주 보게된다.

알버커키는 세가지 특징을 가진 도시이다. 첫째로 이 도시는 사막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의 캐년이나 마른 땅에는 프리클리퍼어 선인장(Prickly Pear Cactus)이나 노란 꽃이 피는 래빗브러쉬(Rabbit Brush) 또는 뉴멕시코의 주화(州花)인 유카(Yucca)등이 자라고 있다.

두번째로 이 도시는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이다. 높은 산디아산의 무릎쯤 되는곳, 향긋한 소나무 냄새가 나는 피니언(Piñon) 나무가 자라는 해발 5000피트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이다. 세번째는 리오그란데 벨리(Valley:계곡)에 자리잡은 도시이다. 올드타운에서 불과 ¼마일 떨어진 곳에 흐르는 리오그란데강가의 보스키(Bosques) 수풀지역과 풍족한 물은 스페인 이주자들이 1706년에 이곳에 도시를 만들며 정착하게 된 큰 이유가 된다. 스페인 사람들의 개척 당시에 산타페와 멕시코시티를 잇는 길이 이곳을 지나갔는데 이 길은 내륙의 로알 로드(Royal Road)라고도 부르는 Camino Real de Tierra Adentro였다. 한세기 뒤에 아메리카 사람들이 서부 개척을 하며 산타페 트레일을 따라 서진하여 이곳에 오게 되자 동서의 길과 남북의 길이 만나게 되며 강가의 이 도시는 교통 요지가 되었다. 20세기 중반경에 하이웨이가 건설되어 국도 66번(Route 66)이 들어오자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특성은 더 뚜렷하게 되었다. 국도66번은 미국 서부 개척의 꿈이 연결되는 도로여서 미국의 마더로드(Mother Road)란 별칭도 생겼었다. 수 백 마일을 달려온 끝에 나타나는 신 도시 알버커키에는 여행객을 위한 모텔과 식당의 네온사인이 66번 도로가 된 센트럴 도로변을 장식하고 있으며 TV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되는 무대가 되기도 했다.

알버커키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다. 2차세계대전 중에 세워진 샌디아 국립과학연구소는 알버커키 국제공항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태양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핵융합등의 연구에 중심이 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선조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도 1975년 빌 게이츠와 폴 알렌이 이곳에서 회사를 시작했고 4년뒤에 시애틀로 옮겨갔다. 알버커키에는 약 2만5천명의



직장인이 하이텍 산업에 속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대략 절반은 샌디아 연구소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 도시는 아메리카 원주민과 히스페닉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원주민의 문화는 인근 리오그란데 벨리 지역 여러 곳에 살고 있는 푸에블로(Pueblo)를 대표하며 히스페닉 문화는 4세기 넘게 받아온 스페인의 영향이 이를 말해준다. 스페인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산 펠리페 데 네리 (San Felipe de Neri) 교회는 올드타운 플라자 북쪽에 있다. 인근에 있는 여러 갤러리 중에는 안드류 푸에블로 도자기 갤러리가 있다. 원주민의 도자기 예술품과 보석 장식품이 볼만하다.

알버커키는 타 도시에서 볼 수없는 여러가지로 짝 차있는 도시이다. 갤러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방울뱀 박물관에서는 의외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국립 히스페닉 문화센터에 들러보면 뉴멕시코에서 산토(Santos: 성인의 그림을 나무 조각물에 그린것) 조각으로 이름난 구스타보 빅터 골라의 작품에서 별에 둘러싸인 가운데 초생달 위에 서있는 <과달루페의 성모(Our Lady of Guadalupe)> 산토를 볼수도 있다.

도시 북쪽에 있는 인디언 푸에블로 문화센터에는 19개의 푸에블로 인디언 마을에서 자랑하는 예술품을 전시해 놓았다. 산 일데폰소 푸에블로의 마리아 마티네즈가 만든 흑색의 그릇이 유명하다.



## 알래스카항공, 알버커키-시애틀 신규노선 취항

미국의 항공사로서는 7번째가 되는 알래스카항공(Alaska Airlines)이 알버커키와 시애틀 간에 직항(Nonstop) 신규 노선을 신설하고 9월18일 부터 취항을 시작했다.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과 앵커리지 국제공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삼고 미국 서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알래스카항공은 최근 기항지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개의 신규 직항노선을 개설한 바 있다. 알래스카항공은 대한항공, 아메리카항공, 델타항공과 코드셰어를 하고 있다.

알버커키-시애틀 신규 노선은 매일 오전 10시55분 시애틀에서, 매일 오후 3시 45분 알버커키에서 각각 이륙하며 운항시간은 3시간5분이 된다. 지금까지 시애틀-알버커키 직항노선을 제공해 온 사우스웨스트항공 (Southwest Airlines)은 내년 3월까지만 운항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되면 알래스카항공은 알버커키-시애틀 간에 직항노선을 제공하는 유일한 항공회사가 될 것이다.

시애틀 신규 노선의 항공 요금을 인터넷을 통해 보면 편도 요금이 11월 주중일 경우 \$128.10 에서 시작되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129과 같은 수준이다. 사용하는 기종은 136석을 가진 보잉 737-700을 주종이면서 보다 큰 항공기인 보잉737-800(175석)과 보잉737-900(181석)을 승객이 많은 주말에 배정하고 있다. 알래스카 항공이 보유한 보잉 항공기는 모두 125대가 된다고 한다.

알버커키시의 리처드 J. 베리 시장은 “여행객의 만족도 평가에서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알래스카 항공이 알버커키에 들어온 것은 듀크시티 (Duke City: 알버커키의 별칭)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며 알버커키의 쉐포트(Sunport)공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알래스카항공의 많은 기착지로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지고 알래스카항공의 많은 여행객은 뉴멕시코의 매력과 친절을 더 쉽게 와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애틀에서 직항 운행 하는 도시는 이로서 79개 도시가 되었고 이곳을 향하는 항공기의 매일 이륙하는 횟수도 최대 268회에 달하게 되었다. 알래스카항공 기내 잡지인 <Alaska Airlines Magazine> 9월호에는 이달에 개설한 직항노선의 기착지인



알래스카항공기의 수직 꼬리 날개에는 에스키모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알래스카 항공의 국내 노선 (적색 노선은 코드셰어 항공 노선)

알버커키와 디트로이트 그리고 벨티모어, 세 도시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광야의 소리에 기사 인용을 위해 사진 전제 허락을 E-mail로 요청했더니 한시간 만에 답장을 받았다. 역시 알래스카항공의 고객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체험할수 있었다. <글: 편집부> ■

<10쪽에서 계속>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곳 리오그란데 벨리의 밝은 색깔, 맑은 날씨를 즐기고 산다. 열기구와 같은 밝은 색의 현대적인 것과 또한 오랜 전통의 원주민 문화와 스페인 문화가 주는 색과 조화되어 다채로운 색의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식당에서 빨간 칠리 소스나 그린(Green) 칠리 소스나를 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재미있고 즐거운 이곳만이 가진 난관의 하나이다.

원문 기사는 아래의 Alaska Airlines Magazine (September issue) 웹사이트를 통해서 읽어 볼수 있다. 또한 알래스카항공 블로그에서도 읽을수 있다.

<http://www.paradigmccg.com/digitaleditions/aam-0914/index.html>

<http://blog.alaskaair.com/2014/10/04/albuquerque/>  
(요약: 편집부) ■

##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나서

김준호 장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그동안 써온 원고들을 모아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오”란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출판 기념회를 해본 적도 없고 참석한 적도 없는 나로서는 김기전 목사님의 기도와 축사 이경화 장로님의 축사 그리고

나의 감사 인사 정도를 하는 간단한 행사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김 목사님께서 순서를 잘 기획해주셔서 기대 이상의 훌륭한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김 목사님은 이 지역에 있는 윤성열 목사님, 김의석 목사님, 이석종 목사님, 현용규 목사님께 순서를 부탁해주셨고 또한 감리교회 이경화 장로님과 민형식 권사님이 순서를 맡아주셔서 기념행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마치게 되었다. 순서를 맡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우리 부부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귀한 행사였다. 결혼 50주년과 희수를 맞아 하는 행사라 우리들의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였다. 순서지는 보신 분은 알 수 있듯이 우리 family book 표지를 본 따서 제목으로 “광야에 길을 만드시오”를 사용하였고 또한 우리 김수영 권사가 샌디아 산의 한 트레일에서 스케치한 책표지 그림을 그대로 순서지에 사용하였다. 순서지 색깔도 우리 내외가 선택한 표지 색깔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더욱 의미 있고 흐뭇했다.

기념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서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친교실 장식을 위해 감리교회 믿음 속회

속장님이신 장은수 집사님, 그리고 서순분 집사님, 성은미 교우, 최미나 교우께서 수고해주셨다. 이분들은 친교실을 책 표지 색깔과 같은 light green 색깔로 예쁘게 장식해 주셔서 친교실 안이 정말 축제분위기를 느낄 만큼 풍성했다. 또한 테이블 음식을 도와주신 이정옥 집사님과 송길순 집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서순분 집사님은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리듯이 꽃을 우리들에게 달아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남편 되시는 Mr. Robert Hickey씨는 책을 뒤적거리다가 부록에 실린 나의 연구 논문 중에서 1960년대에 한국 전자공학회지에 발표했던 나의 transistor 개발

연구 논문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나는 좀 놀랐다. 어떻게 미국분이 우리말로 쓴 논문을 알아보았을까! 아마도 그분이 유명한 반도체 회사인 Intel에서 일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뜻 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많은 낮익은 얼굴들이 찍힌 아래 기념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지인들이 참석해주셨다. 물론 개인 사정으로 인해 몇몇 분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했다. 이 사진은 감리교회 신광순 권사님이 찍어주신 것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사진사의 역할을 잘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선물한 책들은 거의 300권에 달하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A-1 식료품 가게에 오시면 주인이신 신옥주 집사님께서 남은 책들을 다 나갈 때까지 나눠주신다고 했다. 이 책은 우리 부부가 평생 동안 겪은 신앙간증이기 때문에 감동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딱딱하기도 하고 맹숭맹숭하기도 해서 읽는 독자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일 줄 안다. 이 말은 미국에 이민 온 독자들의 다양한 경험에 따라 책의 내용들이

매우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말이다. 허나 우리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은 안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바이다.

다음에는 몇 분들이 서평이라고나 할까 또는 그분들이 느낀 것들을 이메일이나 카드로 보내 주신 것들이다. 함께





나누어보고자 여기에 소개한다.

2. 박수경 집사님 (10-10-2014)

### 1. 나정용 목사님 (10-5-2014)

사랑하는 김준호 長老님, 김수영 권사님 께

Hallelujah !!! Praise the Lord !!!

그간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가운데 평강을 누리시며 매일 매일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고 계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 주신 책 “광야에 길을 만드시오”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야 49장 19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장로님 내외분의 삶을 그대로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오” 사막에 강을 내셨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하였습시다마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우선 펜을 들었습니다. 책의 구석구석에 사랑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오 장로님 내외를 인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함께 하는 Enthusiasm! 그리고 진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금강석같이 빛나는 탐구! 인내의 줄로 엮어 놓은 불굴의 용기가 장로님 내외분의 생의 내용이었음을 발견하고 Hallelujah! 소리 높여 우리주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읊조리는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책을 권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허무한 인생이 새 의미를 갖게 되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새 피조물(고후 5:17)이 되어 새 생명(요 10:10)을 누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Part 1(그분과 함께)의 “팔폰이의 자람(2010년 1월호)”을 읽기만 해도 좋은 일이 있을 텐데... 하는 마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시다. 저를 저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중국에 가서는 중국사람(한족)을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공산당의 잣대로 보면 “illegal” 이지요)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통역하는 이”가 늘 있었습시다).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많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 그들보다 먼저 제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였습시다. 제 스스로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요.

지금 중국은 성령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1억!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후이면 2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체제가 바뀔 것입니다.) 위그루 족(그들은 모슬렘 입니다)을 복음화 하는 것은 자기들 책임이고 그들이 복음화되기만하면 중동의 모슬렘에 대한 힘찬 발걸음은 그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중국 기독교인 열심은, 한국의 1970년대 뜨거운 열심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왔다는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습시다. 지금도 그들의 뜨거운 신앙을 한없이 부러워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부끄러운 신앙을 바라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김장로님 내외분이 만드신 신앙이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책을 받았으니 저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이 기쁨을 뉴저지 연합교회 양호 장로님 (김장로님의 대학교 후배이며 미국에 와서 전자공학 박사학위 받으신 분)과 나누었습니다. 김장로님의 후배되시니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겠습시다.

김장로님 내외분께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제 앞으로도 “동일하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Hallelujah! 아무쪼록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長老님 内外 분과 家族위에 그리고 김기천 牧師님과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온 교우위에 충만 忠滿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뉴저지 하늘 아래에서

教第 나정용 드림

“장로님, 권사님 책 잘 받았습니다.”

안녕하셔요~. 박 수경입니다. 조금전 메일박스에서 보내주신 책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빨리 집 정리하고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반자마자 꽤 많이 읽고 있는데 벌써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책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두 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같아 많이 감동받았고 또 제 삶을 비춰보며 반성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야 좀 정리가 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동생네 맡겨 놓 집을 가져오려면 또 한 번 이사하는 것처럼 정신없을 거 같아요~. 알버커키에서 간단한 살림살이로 살았던 때가 벌써 그림습시다. 왜 이리 한국은 바쁘고 정신없는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집은 많은지요..^^:: 한국에서 너무 소비만하면서 살았던 거 같습니다...

알버커키에서 살면서 장로님 내외분을 보면서 저랑 남편도 나중에 그런 교회의 기둥으로 역할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시다. 늘 젊은 사람들을 이해해 주시고.. 늘 “수고한다” 격려해주셨던 덕분에 교회에서 힘을 얻었구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돌려드려야할지요...

이 사랑의 빛을 저는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로운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꼭 되서 다시 한번 알버커키에 가서 장로님 내외분과 다른 교회분들도 뵙고싶어요~.

벌써 너무 그림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알버커키에서의 시간이 저를 성장시켜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도 준 것 같아요 ~^^. 책 제목처럼 “광야에 길을 만드시오” 우리를 인도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잠시나마 이 책을 받고 마치 제가 알버커키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책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건강하시구요~~.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박수경 집사님 (10-12-2014)

장로님, 광야의 소리에 제 메일이 실린다니 좀 부끄럽긴 하지만 실어주신단 영광입니다~^^. 보내주신 책은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논문은 잘 모르겠어서 슬쩍 넘겼습시다~ 죄송해요~^^ 근데 남편은 꽤 흥미로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공통적으로 제일 좋아한 부분은 바로 권사님의 그림들이었어요~^^. 어쩔 그렇게 다양하고 간결하게 꽃을 잘 표현하셨는지 그림에 소질이 없는 저로선 감탄할 따름입니다. 언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여기가 주일이라 새로 등록한 “선한목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지 참 많이 편하고 잘 온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알버커키는 토요일 밤이겠네요~^^. 가족 같았던 교회가 또 그림습시다. 아이들도 교회를 제일 그리워해요. 성도님들께 안부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박수경 드림

### 3. 김정근 감리사님 (10-3-2014)

경애하는 김 준 호 장로님

어제 밤에 보내주신 책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밤에도 계속 읽으려고 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한 5-6권 보내주시면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염치없이 너무 많이 부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꼭 3권 만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김정근 목사 올림

# 진리를 찾으려는 의지

성경 본문을 관찰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의지”이다. “의지”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굳은 마음”을 일컫는다. 무언가를 발견해내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찾게 된다.

어떤 사람이 집 안에서 결혼 예물로 받은 귀한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은 집안 어딘가에 두었거나 아니면 떨어진 반지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반지를 찾겠다는 마음이 곧 의지인 것이다. 반지를 찾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 장롱을 열어보고 옷 주머니를 뒤지며 반지를 돌 만한 모든 장소들을 철저히 살핀다. 그래도 안 나오면 바닥까지 살살이 찾아본다. 평상시에는 생각 없이 보았던 방바닥이지만 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보면 바닥에 있는 먼지까지도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의지 없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의지를 가지고 보면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에 감추어진 진리를 찾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그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미 눈에 익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생각뿐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면 싫증나고 지루해진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성경은 수면제와 같다는 말을 한다. 읽을수록 잠이 오니까 하는 말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들어 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통해서 질병에서 치유를, 절망에서 소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이미 경험하기도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이런 진리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의지를 가지고 읽는 것을 “관찰”이라고 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본문을 관찰해야 한다. 그래야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도 한 말씀 하셨다. “

김기천 목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곧 “관찰하라, 그러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란 뜻도 된다.

성경 안에 한 본문이라도 관찰하면 할수록 계속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 어제 안보이던 것이 오늘 다시 관찰하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같은 본문을 다음날 관찰하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 성경 한 본문 안에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진리가 들어 있다. 그래서 같은 한 성경 한 본문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온 것이다. 관찰에는 지름길이 없다. 의지를 가지고 계속 관찰해야 한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나온다. 열거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읽어나가면 곧 지루함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기록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읽어나가면 그 안에 들어 있는 특이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와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보통 여인들이 아니라 모두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란 것이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한 여인이다. 라합은 몸을 파는 창녀였다. 룻은 남편과 사별하고 보아스와 재혼한 여인이다. 밧세바는 다윗에 의해 간통당한 여인이다.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

<13쪽에서 계속>

## 4. 홍정희 씨 (10-15-2014)

장로님 부부께

For the ways you are there and the ways you care may God bless you always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고 잘 보았습니다. 그 많은 세월속에서 주님 축복이 듬뿍 담겨 있음이 보입니다. 두 분의 생애에 계속해서 더욱 더 많은 주님의 쓰임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 5. 조원향 제자 (10-6-2014)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먼저 금혼식 축하드립니다. 태자 \*가 24기 카페에 사진과 함께 올려주어 건강한 두분 모습 뵈었어요. 책을 내셨다는 소식도

접했는데 선생님께서 부터 책을 받는, 상상하기 힘든 기쁜 일이 있어 너무 감사하며 한편 죄송스럽기도 해요. 찾아 뵈어야 하는데

아직 책 속의 글은 채 읽지 못했는데 특히 선생님의 그림들이 담겨 있어 제게는 아주 소중한 책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만나 뵈을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분이 가끔 드셨으면 해서 차를 준비해 뵈는데 향이 맘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내 행복하시기를...

조원향 드림

(\*윤태자씨는 알버커키에 있는 제자)

## 6. 남호운 집사님 과 남숙인 집사님 (10-16-2014)

김 장로님. 출간하신 책은 김성호권사를 통해 잘 받았습니다. 대단하시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권사님의 그림들도 오랫동안 보게 되서 좋았습니다. 권사님도 안녕하시고, 손주들을 사진을 통해서나마 보게 되서 좋습니다. 우리 둘째아들 올리버가 2년전에 결혼은 했지만 아직은 아이가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지요..

아직도 테니스를 치신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언제가 만나 뵈고 테니스를 한번 치면 좋겠네요. ■



미국 역사 시리즈 (3)

# 알래스카 매입과 하와이 합병

1867년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획득한 시대의 걸작이었다. 링컨 대통령 내각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H. 수어드(William H. Seward)는 국민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에 사들였다. 당시 신문들은 남북 전쟁으로 재정이 바닥이 났는데 얼음 덩어리에 불과한 알래스카를 사들여서 어찌겠냐는 식으로 논리를 펴 국민 대다수가 이 거래를 반대했다. 그러나 수어드 장관은 앞으로 30년

후 나를 평가해 달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알래스카는 그 당시의 미국에서 제일 큰 3개 주인 텍사스, 캘리포니아, 몬타나를 합한 넓이었다. 황금 어장을 포함해 석유와 가스가 무진장인 이 땅을 에이커당 2센트 정도에 사들였으니 거저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미국은 알래스카와 중부 대륙 루이지애나, 텍사스, 캘리포니아를 차지하는 바람에 중국

대륙보다도 더 큰 영토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하와이는 길고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합병하게 된다. 알래스카 매입 후 미국은 (1) 새로운 시장과 자원의 필요성, (2) 앵글로 색슨 민족 우월성의 신념과 긍지, (3) 유럽과의 경쟁, (4) 해상



알래스카와 미국 본토와 면적 비교

장악력의 필요성 등을 깨닫고 해외로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기를 갈망했다. 이런 이유로 현대적인 해군 함대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오래 전부터 하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와이는 독립 전쟁 때부터 돈 벌이가 되는 중국과 동인도와의 무역을 위해 거대한 상선들이 태평양 횡단 항해 도중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와이가 최적의 섬이었기 때문이었다.

1820년에 뉴잉글랜드의 선교사들과 상인들에 의해 하와이의 중심지인 호놀룰루는 뉴잉글랜드와 같은 모습의 도시로 변모되었다. 1850년대에는 하와이의 경제 구조가 주된 산업이던 고래 사냥에서 사탕수수 재배로 대체 되었고 거의 모든 사탕수수 농장은 미국본토의 백인 소유가 되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바다에 있는 풍부한 물고기들과 자신들의 농장에서 잘 자라나는

전 용 배 집사

Kitch Cleaners: Owner



작은 토란 같은 식용 작물들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돈벌이를 위해 뜨거운 태양아래 온종일 사탕수수 밭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미국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탕수수 농장 소유주에게는 사업성이 없어서 미국 노동자를 쓸 수도 없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젊은 중국 남성, 포르투갈 남성, 후에는 일본 남성들을 수만 명을 데려와 사탕수수 밭일을 시켰다. 이렇게 되면서 1872년에는 하와이 원주민이 본인들의 땅에서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887년 하와이 태생의 백인 사업가가 하와이 왕에게 헌법을 바꾸도록 무력을 행사하여 토지를 가진 사람이나 일정 수입 이상을 가진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원주민은 가난했고 토지도 가지지 않았으며 이민 노동자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치 권력은 서서히 미국 사업가의 손으로 넘어갔다.

1891년 왕이 죽자 그의 여동생 릴리우오칼라니(Liki'uokalani)가 여왕으로 등극했다. 그녀는 백인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와이는 하와이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선거법을 바꿀 것을 천명했다. 그 결과로 미국서 파견된 정무장관(또는 공사)의 지원 아래 백인 사업가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1893년 1월 16일 미군함 보스턴 호가 아무런 경고 없이 호놀룰루 항에 나타나 미 해병대에 의해 하와이 깃발은 내려지고 대신에 성조기가 게양되었고 여왕은 연금 상태에 놓였다.



릴리우오칼라니 하와이 여왕 유명한 노래 알로하오에 작사 작곡자 이기도 하다.

그러나 후에 클리블랜드 대통령 (22대와 24대)이 특별 수사를 하여 미 정무장관에게 반란의 책임을 물어 여왕에게 왕권을 되돌려 주도록 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파인애플 농장을 가진 돌 (Dole)을 대표로 하는 하와이의 새 공화국을 재건하도록 했다. 1894년 재 해결책으로 더 이상 하와이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발발해 미국 내의 여론은 뒤 바뀌었고 하와이 공화국은 미국에 병합하기를 다시 청원하였다. 이때 미국 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1898년 12월 하와이는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이때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필리핀과 괌을 점령했고 쿠바를 침공해 스페인 함대를 파괴하여 푸에르토리코도 미국령으로 만들었다. 드디어 1959년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What is Medicare?



##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인 분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장애, 영구적인 신장 부전 또는 근위축성 측방 경화증(루게릭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포함하여 65세 미만인 특정 사람들도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지만 모든 의료 비용이나 장기간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어는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지불하는 근로세의 일부로 재정이 충당됩니다. 또한 사회 보장 수표에서 보험료를 매월 공제하여 재정의 일부를 충당합니다.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사회 보장국을 통해 메디케어를 신청하시면, 저희는 귀하께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메디케어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병원 보험 (Part A)은 병원 또는 전문 간호 시설 입원 치료 (병원 입원후에 이어지는), 몇몇 가정 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료 보험 (Part B)은 병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사 진료와 기타 여러가지 의료 서비스 및 의료용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Part C)

이 혜택도 여러 영역에 적용이 가능 합니다.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에 가입된 분들은 본인들의 모든 건강 간호 서비스를 Part C 산하에서 운영 되어지는 하나의 공급기관을 통한 수령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처방약 비용적용(Part D)은 의사들이 치료를 위해 처방한 약에 대한 비용을 지원 합니다.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의 적용 항목에 대한 상세 안내는 Medicare & You (메디케어와 수혜자, 간행물 번호 CMS-10050)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 1-800-MEDICARE (1-800-633-4227) 번으로 요청하십시오, [www.medicare.gov/publications](http://www.medicare.gov/publications), 만약 청각자이시거나 청각이 불편 하시면 TTY 1-877-486-2048 번으로 전화 하십시오.

### 메디케이드에 대해

혹 여러분께서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에서 관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재산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병원 및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 가입 및 수혜 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양쪽 모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안내는 각 지역의 의료 지원 기관, 사회 서비스 또는 복지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누가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가?

#### 병원 보험(Part A)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의 대부분이 무료로 메디케어 병원 보험(Part A)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65세 이상이며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 사회 보장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혜 자격이 있는 분; 또는
- 철도 은퇴자 협회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혜 자격이 있는 분; 또는
- 귀하의 배우자가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또는
-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생존 또는 사망, 이혼한 배우자를 포함)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정부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 또는
- 귀하는 완전 부보된 사망 자녀의 피부양 부모입니다.

위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여러분께서는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메디케어 병원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병원 보험 가입은 오로지 지정된 등록 기간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정년 퇴직 연령이 더이상 65세 가 아닐지라도, 메디케어 신청은 귀하의 65번째 생일 3개월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65세 이하이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메디케어 병원 보험에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24개월 동안 사회 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분; 또는
- 철도 은퇴자 협회로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으며 특정 조건에 부합되는 분; 또는
- 귀하에게 루게릭병(근위축성 측방 경화증)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장애 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정부(관련)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사회 보장 장애인 프로그램 조건에 부합하는 분; 또는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정부(관련)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분의 자녀나 이혼을 한 생존 배우자를 포함 하여 50세 이상의 생존 배우자로 사회 보장 장애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분.

•귀하께서 신장 질환이시고 신장 투석 유지를 받고 있거나 또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해:

—사회 보장 제도 또는 철도 은퇴 제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복지 수당에 대한 수혜 자격이 있거나 수혜를 받고 있는 분; 또는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정부 기관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분; 또는

—사회 보장 제도 또는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정부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생존 또는 사망)의 자녀 또는 배우자(이혼 배우자 포함).

## 의료 보험 (Part B)

무료 메디케어 병원 보험(파트 A) 유자격자는 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메디케어 의료 보험(파트 B)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높은 일부 수혜자는 더 높은 월 파트 B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메디케어 보험료: 고소득 수혜자 규칙(Medicare Premiums: Rules For Higher-Income Beneficiaries, 간행물 번호 05-10536, 이 간행물은 영어판만 있음) 안내서를 참조하거나 [www.socialsecurity.gov/mediinfo.htm](http://www.socialsecurity.gov/mediinfo.ht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으로, 병원 보험 가입 무료 자격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병원 보험에 유료 가입할 필요 없이 의료 보험에 유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 합법적으로 들어온 비시민권자로서 현재 미국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메디케어 어드벤처 플랜(Part C)

만약 귀하께서 메디케어 파트 A 및 B를 갖고 계신다면 메디케어 어드벤처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처 플랜은 민간 회사가 제공하며 메디케어가 승인합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플랜 중 하나를 갖고 계시면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일 수를 사용한 후 추가로 며칠을 더 병원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메디캡 보험이 적용될 같은 혜택의 많은 부분을 메디케어 어드벤처 플랜이 보장하기 때문에 메디캡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처 플랜은 다음사항들을 포함 합니다:

- 메디케어 관리 보호 플랜;
- 메디케어 우선 공급자 기관(PPO);
- 메디케어 개인 무료 서비스 플랜; 그리고
- 메디케어 전문 플랜.

신규로 메디케어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최초 등록 기간 (10 페이지의 메디케어 가입에서 설명)에 또는 매년 10월 15일-12월 7일 사이의 연례 조정 선택 기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발효일은 다가오는 해의 1월 1 일입니다. 일부 상황의 경우 특별 등록 기간도 있을 것입니다.

##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 프로그램(Part D)

메디케어 병원보험(파트 A), 의료보험(파트 B)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처 플랜(파트 C)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방약 보험(파트 D)의 자격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가입은 자발적인 것이고 이 보험을 위한 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이 더 높은 일부 수혜자는 더 높은 월 파트 D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메디케어 보험료: 고소득 수혜자 규칙 (Medicare Premiums: Rules For Higher-Income Beneficiaries)간행물 번호 05-10536) 안내서를 참조하거나 [www.socialsecurity.gov/mediinfo.htm](http://www.socialsecurity.gov/mediinfo.ht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에게 훌륭한 다른 처방약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의 가입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았을때 적어도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만큼 좋은 처방약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다리다 나중에 가입하면 벌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귀하는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이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로 메디케어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최초 등록 기간 (10 페이지의 메디케어 가입에서 설명)에 등록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기간 후 등록 또는 보험회사 변경을 할 수 있는 연례 조정 선택 기간은 매년 10월 15일-12월 7 일입니다. 등록 발효일은 다가오는 해의 1월 1일입니다. 일부 상황의 경우 특별 등록 기간도 있을 것입니다.

## 일부 저소득자를 위한 지원

메디케어 보험료와 기타 의료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분들께서는 거주하고 계신 주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정부에서는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있는 저소득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 공제액 및 본인 부담금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트 A( 병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이 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의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www.medicare.gov/publications](http://www.medicare.gov/publications)를 방문하여 메디케어 비용 지원받기(Get help with your Medicare costs, 간행물 번호 CMS-10126) 안내서를 요청하십시오.

귀하의 주 정부만 귀하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거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혜 자격 여부에 관해 알아보려면 본인의 주 또는 지역 의료 지원(메디케이드) 기관, 사회 서비스 또는 복지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귀하는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파트 D)에 관련된 년 공제액, 월 보험료 및 처방약 공동 부담액을 지불하기 위한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한정된 소득 ( 연방 정부 빈곤 수준에 연계)과 한정된 재산을 갖고 있다면 추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및 재산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해마다 바뀌는 데 현재의 숫자를 알아보려면 우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일 귀하가 메디케어를 갖고 있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처방약이 보장되는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다;
- 생활보조금(SSI)을 받고 있다; 또는

•귀하의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불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처방약 비용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한 상세 안내를 원하시면 사회보장청의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사회보장청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메디케어가입

###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이미 사회보장청으로부터 사회보장 퇴직 또는 장애 급여 또는 철도 퇴직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메디케어 가입 자격 발생 몇 개월 전에 통보가 되어 필요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귀하가 50개 주 중 하나 또는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경우 메디케어 파트 A 및 B에 자동으로 등록될 것입니다. 단, 귀하는 파트 B 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선택권을 갖습니다.

주: 푸에르토리코 또는 외국의 거주자는 파트 B를 자동적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 은퇴 수당을 받고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서는 65세 생일 3개월 이전에 저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65세 정년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에게서도 메디케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메디케어에 가입되면, 여러분이 가입한 메디케어가 Part A인지, Part B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인지를 나타내는 적색, 백색, 청색의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카드는 잘 보관하시어 필요시 사용하십시오. 혹시라도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신 경우에는, 인터넷 [www.socialsecurity.gov](http://www.socialsecurity.gov) 에서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로 사회 보장국에 요청하십시오. 카드 외에, 메디케어 보험 급부와 선택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종류가 설명되어 있는 Medicare & You (메디케어와 수혜자, 간행물 번호 CMS-10050) 안내 책자도 제공될 것입니다.

## 특별 등록 조건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에게서는 메디케어 신청에 대해 사회 보장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남편 또는 부인과 사별한 50세-65세 사이의 장애인으로서 이미 다른 종류의 사회 보장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
- 공무원으로서 65세 이전에 장애를 지니게 된 분;
- 본인,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가 만성 신장 질환을 지닌 분;
- 과거에 메디케어 의료 보험에 가입했으나 중도에 해약한 분; 또는
- 병원 보험 (Part A) 가입 자격이 되었을 때 메디케어 의료 보험 가입을 거부한 분.

## Part B 최초 등록 기간

병원 보험 (Part A)에 처음으로 가입 자격이 생기신 분들에게는 7개월 간의 의료 보험(Part B) 가입 신청 기간 (최초 등록 기간)이 부여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등록 지연은 보험 적용 지연을 초래할 것이며 보험료도 더 비싸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65세에 가입 자격이 발생하는 분들의 최초 등록 기간은 65세 생일 3개월 이전에 시작하여 65세가 되는 달이 포함되고 생일 3개월 후에

종료됩니다. 장애 또는 만성 신장질환을 근거로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발생한 분들의 최초 등록 기간은 장애 또는 치료가 시작된 날짜에 따라 결정됩니다.

## Part B 등록 후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까?

메디케어 Part B의 자동 등록을 수락하거나 최초 등록 기간 첫 3개월 동안에 메디케어 Part B에 등록하신 경우, 의료 보험 적용은 여러분의 가입 자격이 처음으로 발생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최초 등록 기간 후반 4개월 동안에 등록하신 경우, 효력은 등록 후 1개월에서 3개월이 경과한 후 발생합니다.

다음 도표는 메디케어 Part B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최초 등록 기간의 이 달에 등록하는 경우:	그러면 파트 B 메디케어 보장이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One to three months before you reach age 65	The month you reach age 65
65세에 도달하기 전 1~3 개월	65세에 도달한 달
65세에 도달한 달	65세에 도달한 달로부터 1 개월 후
65세에 도달한 달로부터 1 개월 후	등록한 달로부터 2개월 후
65세에 도달하고 2~3개월 후	등록한 달로부터 3개월 후

## Part B 일반 등록 기간

최초 등록 기간에 메디케어 파트 B에 등록하지 않아도 매년 1월 1일~3월 31일 사이의 “일반 등록 기간” 동안에 가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귀하의 보장은 등록한 해의 7월 1일에 시작됩니다. 단, 귀하의 월 보험료는 귀하가 자격이 있었지만 메디케어 파트 B에 등록하지 않았던 각 12개월 기간에 대해 10% 증가합니다.

귀하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을 갖고 있는 경우, 귀하는 1월 1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본인의 플랜을 떠나서 원래의 메디케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또한 2월 14일까지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장은 보험회사가 귀하의 등록서를 받은 다음 달의 1일에 시작됩니다.

## 직장 단체 건강 플랜 가입자를 위한 특별 등록 기간

65세 이상으로서 본인의 현재 직장 또는 배우자의 현재 직장에서의 가입한 단체 건강 플랜의 적용을 받는 분들은 “특별 등록 기간”을 통해 메디케어 Part B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등록 기간까지 기다려 지연 등록에 따른 10% 보험료 인상분을 지불할 필요 없이 메디케어 Part B 등록을 연기할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여러분께서는 다음이 가능합니다:

- 현재 직장에서의 가입한 단체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는 한편, 언제라도 메디케어 Part B에 등록할 수 있음; 또는
- 귀하의 집단 건강 보험이 종료된 마지막 달 또는 고용이 종료된 달(어느 쪽이든 먼저 오는 달) 후에 시작되는 8개월 기간 동안에



메디케어 파트 B에 등록하십시오.

특별 등록 기간 규정은 여러분의 고용으로 인해 제공된 또는 여러분의 고용주가 제공한 단체 건강 보험이 여러분의 최초 등록 기간동안에 종료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아직 단체 건강 보험에 있는 동안에 또는 귀하가 더 이상 플랜에 있지 않은 첫 만1개월 동안에 메디케어 파트 B에 등록하면 귀하의 보장은 다음 중 하나에 시작됩니다:

- 귀하가 등록한 달의 첫날; 또는
- 귀하의 선택으로서 다음 3개월 중 어느 달의 첫날.

“특별 등록 기간”의 잔여 7개월 중에 등록하는 경우 귀하의 메디케어 파트 B 보장은 다음 달의 첫날에 시작됩니다.

8개월 기간이 끝나도록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그 다음 해의 1월 1일에 시작되는 다음 일반 등록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수당을 받으며 본인의 현재 직장 또는 가족이 다니는 직장의 단체 건강 플랜의 적용을 받는 분들은 특별 등록 기간 동안 등록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에 준하는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건강 의료 서비스 옵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건강 의료 서비스 옵션에 대한 상세 안내는 다음의 안내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Medicare & You (메디케어와 수혜자, 간행물 번호 CMS-10050)—이는 메디케어에 관한 종합적 안내 책자로 메디케어 등록 후,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그 후에는 개정판이 매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Choosing a Medigap Policy: A Guide to Health Insurance for People with Medicare (메디갭방침의 선택: 메디케어와 함께 하는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가이드, 간행물 번호CMS-02110)—이 안내 책자는 기타 다른 건강 보험 플랜이 어떻게 메디케어를 보완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 기타 플랜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플랜 구입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위 안내 책자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 1-800-MEDICARE (1-800-633-4227)번으로 요청하시거나 또는 인터넷 [www.medicare.gov/publications](http://www.medicare.gov/publications)을 방문 하십시오. 만일 귀하께서 청각 장애자 이거나 청각이 불편 하시면 TTY 1-877-486-2048 번으로 전화 하십시오.

## 타 건강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메디케어 병원 보험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나, 의료 보험의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어 가입 자격 발생 시점에 이미 다른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매월 보험료를 내가면서 메디케어 의료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은 각 사람별로 그리고 그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다른 건강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비록 우리는 귀하에게 “예” 또는 “아니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귀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보험 플랜에 가입된 경우

여러분의 보험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여러분이 가입한 개인 플랜이 메디케어 의료 보험과 어떻게 보완 관계를 이루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가족중 같은 보험의 적용을 받는 분이 게실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가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듯이, 대부분의 개인 플랜들도 마찬가지로 기약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보험을 계획함에 있어, 요양 시설에서의 간호는 대부분 메디케어 또는 개인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함을 유념하십시오. 중요한 주의 사항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메디케어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어떠한 개인 건강 보험도 해약하지 마십시오.

## 고용주 제공 단체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법에 의해, 2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65세 이상 근로자와 그들의 배우자에게 젊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단체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 건강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게서는 메디케어 의료 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 인사부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 기타 다른 건강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국방부 제공 프로그램에 따른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강 보험 급부는 이 분들에게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발생하면 변경 또는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서는 메디케어 의료 보험 등록 여부 결정전에 국방부 또는 군 건강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건강 보호 혜택을 인디언 보건청이나, 보훈처 또는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각 해당 사무실에 문의하시어 메디케어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로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기타 다른 건강 보험 플랜이 메디케어와 어떻게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는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메디케어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 1-800-MEDICARE (1-800-633-4227) 번으로 문의하시어 Medicare and Other Health Benefits: Your Guide to Who Pays First (메디케어와 다른 건강 급부: 보험료 지불에 관한 안내서, 간행물 번호 CMS-02179) 안내 책자를 요청하시거나 인터넷 [www.medicare.gov/publications](http://www.medicare.gov/publications)을 방문하십시오. 만일 귀하께서 청각 장애자이거나 청각이 불편 하시면 TTY 1-877-484-2048 번으로 전화 하십시오. ■



## 미국의 소리 영어 교실

### Feeling Off

오늘의 영어 표현은 Feeling off 입니다.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that they are feeling a bit off? FEELING OFF / TO FEEL OFF.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feeling off' 가 무슨 뜻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 Feeling off / To feel off

Jason: Did you get home safely and get some rest after the party?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Jen: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Jason: Well get some rest.

Jen: Yes, I'd better do that.

Jason이 저에게 "Did you get home safely and get some rest after the party? 어제 집에 잘 들어갔니? 좀 쉬었어? 라고 물으면서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너 파티 끝나고 늦게까지 남아서 치우는 거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하자 제가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응, 집에는 잘 들어갔는데, 잠이 영 안 와서 폭 못 잤어.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정신이 멍한 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라고 했습니다. 이어 Jason이 "Well get some rest. 저런, 오늘은 폭 쉬어야겠다."라고 하자 제가 "Yes, I'd better do that. 네 말이 맞아. 그래야겠어."라고 대답했죠. Keep today's phrase 'feeling off / to feel off'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 Feeling off / To feel off

Jason: Did you get home safely and get some rest after the party?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Jen: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Jason: Well get some rest.

Jen: Yes, I'd better do that.

오늘의 영어표현은 feeling off / to feel off입니다. If you are feeling off, it means that you're not feeling like yourself and something is not quite right. So you may feel a bit strange,

## 2014년 성탄 음악회

장소 :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본당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일시: 12월 21일 오후 7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성탄축하의 밤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주최  
한인사회 여러 단체 후원



Tel: (505) 341-0205 www.kumcabq.com

위의 사진은 지난해 성탄 음악회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weird, or just not well physically. You can also use the phrase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Feeling off / to feel off' 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정신이 멍하다, 기분이 아주 묘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under the weather / to feel under the weather' 가 있는데요, 역시 몸이 안 좋다, 날씨 탓으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I don't think I can go out today. I'm feeling a bit off. I think I should stay home and rest." 라고 하면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그냥 집에서 쉬어야 할까 봐."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can't concentrate on this project. I'm feeling off." 라고 하면 "이번 일에 집중을 제대로 못 하겠어.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it means to feeling off / to feel off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 Feeling off / To feel off

Jason: Did you get home safely and get some rest after the party? I know you stayed behind late last night to help clean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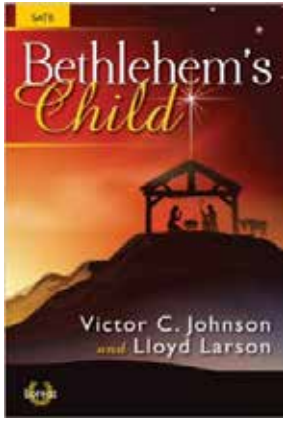
Jen: I got home safely but I didn't get a good night sleep so I'm feeling a bit off this morning.

Jason: Well get some rest.

Jen: Yes, I'd better do that.

Let's review. 'Feeling off / to feel off' means that you're not feeling like yourself and that you feel a bit strange, weird, or just not well physically. FEELING OFF / TO FEEL OFF.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O에 Jennifer Yoo 입니다. Bye Bye! ■





## 칸타타를 함께 부를 합창 단원을 찾습니다.

2014년 지역 주민을 위한 성탄축하 음악회에 참가할 단원을 모집 하고 있습니다. 남녀 노소 에 제한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 하실 뜻을 가지신 분으로 합 창을 좋아 하시면 누구나 참가 하실수 있습니다. 매주 한시간씩 공연 날짜까지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음악회 날짜: 2014년 12월 21일 7:00 PM (장소: 본 교회 본당)  
연습 시간 : 매주 일요일 오후 1:00 PM~ 2:00PM

총연습 : 12월 20일 7:00 PM  
연습장소 : 알버커키연합 감리교회  
성가대실  
칸타타곡명: 베들레헴의 아기  
8곡으로 구성 (약 30분 상당)

작곡: Victor C. Johnson  
지휘자: 이경화 장로  
반주자: 이유신 집사

합창에 대한 문의처 : Phone: 237-8688  
khlhm@comcast.net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교회 성가대  
601 Tylor Road NE, ALbuquerque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 시간: 오후 12:00 pm  
§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 뉴멕시코 성결교회 (Albuquerque)

전종철 목사 (505) 238-3551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주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87106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505)-269-0691  
주일예배 § 시간: 10:30 am  
§ 주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88011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505)412-5420  
hanaro21@hotmail.com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English Worship § 9:30 am-10: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 11:00 am (Sunday)  
수요예배 §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 5:30 am (Tue-Fri) §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 5:45 am (Tue-Fri)  
수요 예배 § 매주 수요일 7:00 pm  
§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 652-4627  
§ 월모임: 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월~토)  
성경공부 §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 주소: 12120 Copper Ave.NE, Albuquerque, NM 87123

###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b>알버커키 Albuquerque</b>	<b>Sushi &amp; Sake</b>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b>김영신 Yong Shin Kim:</b>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b>이발소 미장원 Hair Cut</b>	<b>고산식 Lonnie Ko</b>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b>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b>	<b>Yummi Hous</b>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b>이준 June Lee</b>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b>Hair &amp; Co(황경희)</b>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b>치과 Dental Clinic</b>
<b>A-1 Oriental</b> 1410 Wyoming NE ABQ (505-275- 9021)	<b>건축/페인트 Painting</b>	<b>세탁소 Dry Cleaners</b>	<b>Hair Dynamic(Ashley)</b>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b>Rainbow Dental</b>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b>Arirang Oriental</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1st Choice Painting</b>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b>Barbone's Cleaners</b>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b>Matthew Lee's Hair Style</b>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b>Stewart P. Ahn 5920</b>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b>Asia Market</b>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503-7685)	<b>공인회계사 CPA</b>	<b>Executive Cleaners</b>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b>Nob Hill Barber Shop</b>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b>태권도 TaeKwonDo</b>
<b>Kim's Oriental: 2306 Morris</b> NE ABQ (505-296-8568)	<b>MTM Accounting Service</b>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Kitch Cleaners</b>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b>Plance Hair Salon(Tina)</b>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b>Dynamic taekwondo acad-</b> <b>emy5850 Eubank blvd</b>
<b>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b>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Salon 123</b> 7114 Menaul NE (505-872-0301)	<b>NE B-35 ABQ, NM 87111</b>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b>Arirang Restaurant</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셋방 ROOM RENT</b>	<b>의류 Clothes</b>	<b>종교 Church</b>	<b>한 의사 Acupuncture</b>
<b>Fu-young</b>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b>리커스토어 Liquors</b>	<b>Best Outlet: 3300 San</b>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b>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b>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b>Dr. Chang: (장상순)</b>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b>Ichiban Japanese: 10701</b> Coors Rd NW ABQ (505- 899-0095)	<b>Kelly Liquors</b>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NM (505-999- 8222)	<b>Dot Clothing Co:</b>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b>뉴멕시코 성결교회</b>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b>Dr. Park: (박달규)</b>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b>I Love Sushi</b>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b>Stadium Liquor</b>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b>Dot Clothing Co</b>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b>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b>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b>화랑 Gallery</b>
<b>Korean BBQ</b>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b>GEM X Imports</b>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b>Fashion USA</b>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b>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b>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b>Park Fine Art Gallery</b>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
<b>Kim's Oriental</b>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b>J-1 Import</b>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b>주님의 교회</b>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b>주택용자 Loan Officer</b>	<b>Osuna Nursery: 501 Osuna</b> Rd NE, ABQ (505-345-6644)
<b>Sakura Sushi Grill</b>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b>NEXT Clothes/Gift</b>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b>김미경 Mikyong Kim</b>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b>사진관 Photo</b>	<b>Star Image</b>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b>Samurai</b>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b>부동산 Realtors</b>			
<b>Shogun</b>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b>A-1 한식 코너</b> 1410 Wyoming Blvd. NE (505)275-9021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중재서비스	종교 Church	카페/ 선물 Cafe/Gift	편집후기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 527-0098)	<p>2014년의 마지막 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11월은 뉴멕시코 한인회에서 계획하는 두 가지 행사로 회장님과 임원진이 수고가 많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 목숨 걸고 우리나라를 지켜준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작은 행사들은 여러 번 있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11월 7일 참전 용사 평화 훈장 수여식은 처음 있는 일로 압니다. 한국전이 “잊혀진 전쟁” 이라고 불릴 만큼 소외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감사를 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p> <p>앨버커키 한미 침례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집회를 계획하고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섬기는 연합 감리교회에서는 교민을 위한 성탄음악회를 예년과 같이 계획하면서 교회 밖에 계신 분들까지 함께 합창으로 성탄을 축하해 보려는 뜻을 가지고 광고도 냈습니다.</p> <p>내년을 준비하는 일이 우리들의 집 뒷마당에서도 나무를 심는 일로 시작할 수 있음을 서혁상 집사님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만든 메디케어 기사를 전제했습니다. 영어해독에 불편하신 연로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린 기사입니다.</p> <p>한국학교의 푸짐한 소식도 자랑스런 커뮤니티 기사였습니다. “용틀임”이라든지 “용두사미”라든지 많은 용과 관련되는 단어를 재인식하게 해준 이정길 교수님의 글도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소리’에 기고 하였던 글을 모아 ‘광야에 길을 만드시오’란 책을 출판하신 김장로님 내외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뉴멕시코 주민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추수 감사절과 성탄절을 은혜가운데 보내시길 광야의 소리 편집진이 기원합니다.</p>
단요가 Dahn Yoga	산타페 Santa Fe	병원 Clinic	
알버커키505-797-2211 커트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트505-286-3535 www.dahnyoga.com	변호사 Law Firm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	
리오란초 Rio Rancho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종교 Church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는 505-269-0691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라스베가스 Las Vegas	
리커스토어 Liquors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치과 Dentist	<p>편집부를 대표해서 이경화 2014년 10월 31일</p>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	Osaka (Traditional Japa- 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412-5420 www.santafekorean.org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라스쿠르세스 Las Cruces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공인회계사 ACC	가게 Store	<p>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4년 11/12월호 발행일 : 2014.11.1</p> <p>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인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p> <p>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p>
건강식품 Health Food	Kelly Tax and Account- 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 ington, 87402 (505-327- 7167)	
인성내츨랄: Los Alamos (505-662-9681)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5  
Tel: 505-988-4476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http://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00-2:00 Mon -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Prudential**  
AllStar, REALTOR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mailto:yongfre@yahoo.com)

7001 Prospect Place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10  
Office: (505) 888-1700

An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broker member of BRER Affiliates LLC. Not affiliated with Prudential. Prudential marks used under license. Equal Housing Opportunity.



**A-1 한국식품**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한식코너

Mon-Sat 10:00am-6: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1410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98112

Korean United Method Church In Albuquerque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505) 341-0205 [www.kumcabq.com](http://www.kumcabq.com)

Attach Stamp

우표를 붙인 후

반을 접어서 발송

**To:**